■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63-189.
http://doi.org/10.17948/kcs.2021..91.163

임진왜란기 안동 지역 지방관과 官軍의 전쟁 수행*

이왕무(李旺茂)**

목 차

1. 머리말
2. 안동의 鎭管 체제와 關防
3. 임진왜란 초기 전황과 행정조직의 현황
4. 안동부의 전쟁 대처
5. 맺음말

국문초록

임진왜란은 7년간 진행된 장기전이었다. 왜란이 7년의 장기전이었다는 것은 병력과 군수품의 정비가 지속되었다는 것과 지역 관서들의 행정 체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쟁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쟁의 공간이었던 지역의 행정적 운영 사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한 배경이다. 왜란에서 경상도는 일본군이 최후까지 울산을 근거로 저항하다가 퇴각한 전투 지역이다. 명나라 군대가 일본군 진압을 위해 주둔하게 되면서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는 국제전을 치르는 양상까지 보였던 지역이었다.

안동의 관원들이 급박한 전쟁 상황에 대처하던 것을 조명하는 것은 임진왜란사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이 지니는 성격과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기존 전쟁사 시각에서 일본군이 공격한 지역의 지방관들을 전쟁에 전혀 대비하

* 본 논문은 2018년도 안동지역 임진란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내용이다.
** 경기대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지 못한 무능한 인물로 폄하한 것을 만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본군의 기습 침략에 의한 전쟁 초기의 衆寡不敵 상태를 무능함으로 돌리는 것은 전쟁사 연구의 시각을 왜곡하는 것이다. 제승방략과 진관체제를 비롯한 관방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왜군과 장기전을 진행하던 관군의 모습에서 지방관의 대처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극복하는 변곡점의 하나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주제어: 임진왜란, 왜침, 경상도, 안동 지방관, 중과부적.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 왕조의 명운이 좌우되던 외침이면서 공동체 사회가 재편되는 엄중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임진왜란은 조선, 명, 일본 등의 정치 권력 체제가 변화되는 국제적 사건이었다. 명태조가 구축하였던 동아시아의 형국이 재편되는 계기를 야기하였다. 명은 이자성 농민군의 반란과 후금의 침략으로 청에게 지역 패권을 넘겨주었다. 일본은 豊臣 정권의 家臣 사이의 내란으로 德川 막부가 전국을 통치하는 江戶 시대를 개막하였다. 반면 조선 왕조는 새로운 권력 체제의 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왕권 중심의 신분제 사회를 재구축시키는 이른바 小中華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선 왕조만이 정권의 교체가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의 보수성과 생명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공동체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개국 초부터 조선은 유교의 국가이고 忠孝를 공동체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군신들의 정치적 아젠다가 사회적으로도 확산되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한 유기체적 공동체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조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 초기에 도성의 민인들이 궁실과 관사들을 방화하며 신분제적 요소를 파괴하던 모습을 감안할 때, 전쟁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정권이 바뀌는 와중에 조선 왕조만이 명맥을 유지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임진왜란은 한국 고대부터의 宿敵인 왜적이 침략한 戰役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시켜 조선 왕조의 체제가 재차 단속되고 강화되어 20세기 초까지 장기 지속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시발점의 역

할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시각을 토대로 임진왜란기 안동 지역의 행정과 관군의 운용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안동은 경상 좌도에 속하는 지역으로 임진왜란 초기에 일본군의 주요 침공로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이다. 일본군의 침략 초기 주공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동래와 성주처럼 대규모 전투 양상이 나타나던 곳은 아니다. '임진전란사'의 국난 극복이라는 거대 스토리에서 다소 밀려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임진왜란사의 주요 논란이 '大捷' 위주의 전쟁영화 같은 장면에 치중한 결과라고도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서는 의병 창의가 활발하였고 도요토미 막하의 최강 무사라고 언급되던 加籐淸正의 주력이 울산으로 후퇴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던 주요 군사 지역이었다. 일본군의 주력 중에 1군은 평안도, 2군은 함경도를 침략한 부대이다. 안동 지역에서 2군의 후방을 요격하지 않았다면 1군과 합세하여 畿甸을 위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란의 와중에 안동도 참화가 비켜간 지역이 아닌 격전지였으며, 안동 지역의 임난사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배경일 것이다.

이러한 임진왜란기 안동 지역에 대한 연구는 관군의 대응과 의병의 召募 및 전투 양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동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임진왜란 관련 연구에서도 왜군의 침략에 대응하던 군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1] 그런데 임진왜란사에서 차지하는 안동 지역이라는 시각에서 기존 연구를 바라본다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물론 기존 연구의 진행이 부족한 사료를 최대한 활용한 점이라는 것은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대부분의 임진왜란사 연구에서 봉착하는 문제이지만, 단일 사건과 지역에 대한

1)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군사편찬연구소, 2010;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군사』 76, 군사편찬연구소, 2010;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군사』 84, 군사편찬연구소, 2012;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下三道 勤王軍 활동 연구」, 『학예지』 19, 육군박물관, 2012;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지원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2014.

전체 이야기가 서술된 연대기 및 일기 등이 소략하여 편린적인 자료를 엮어서 구성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까지도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군의 역할보다는 의병이, 육군보다는 수군의 전공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왜란이 7년이라는 장기전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대와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장의 공간이었던 지역의 행정적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전쟁사에서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라는 점은 병력과 군수품의 보급은 물론 지역 관원들의 행정체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전쟁 수행이 가능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임진왜란에서 경상도는 일본군이 최후까지 울산을 근거로 저항하다가 퇴각한 지역이다. 더욱이 명나라 군대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는 국제전을 치르는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안동부의 부사와 관원들이 급박한 전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상황에 대처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임진왜란사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전쟁 중 안동 지역이 지니는 성격과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기존 전쟁사 시각에서 일본군이 공격한 지역의 지방관들을 전쟁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무능함은 물론 용렬한 인물로 폄하하는 관성적 통념은 지양할 시기라고 본다. 전쟁 초기의 衆寡不敵의 상태를 무능함으로 돌리는 것은 전쟁사의 기본을 왜곡하는 시각이다.

인류 전쟁사에서 강병을 양성한 적의 기습전을 정상적인 군사 시스템을 동원하여 제1차 방어선에서 제어한 경우가 과연 존재했는가를 고려한다면, 임진왜란의 초기 양상은 전쟁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전황이 불리한 와중에도 문관 관료들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하던 모습이 임진왜란 초기에 주목할 연구 대상이라고 본다. 국난극복이라는 애국적인 내용을 강조할 시기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임진왜란의 연구에서 그 부분은 상당수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난극복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쟁사를 기술하면서 양산된 무능한 조선 정부와 관료라는 개념이 부지불식간에 퍼지는 결과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임진왜란사의 과

학적이고 객관적 연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소 미진하고 획일적으로 설명한 임진왜란기 관군의 대응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전쟁 초기 왜군 점령 지역의 행정 체제에 대한 분석은 관군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을 바탕으로 안동부의 지방관과 관군이 임진왜란 초기에 대응한 다양한 사실들을 밝혀 조선 왕조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안동의 鎭管 체제와 關防

안동은 조선 왕조의 개국기부터 大都護府로 경상도의 대표적인 행정, 군사 거점 도시였다. 안동의 지역적 위상은 세조 2년(1457) 지방 군사조직으로 진관체제를 정비하면서 재확인된다. 진관체제는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가 관할하는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가 관할하는 몇 개의 巨鎭을 두고, 그 밑에 절제도위·만호 등이 관할하는 여러 진을 두어 유기적인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전국 행정단위인 읍을 군사조직 단위인 鎭으로 편성해 그 크기에 따라 主鎭, 巨鎭, 諸鎭으로 나누고 각 읍의 수령이 군사 지휘권을 겸하는 것이다. 도마다 진관 조직들을 갖추어 도내의 군사들을 가까운 진관에 소속시킨 다음 유사시에 각 진관의 수령이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의 방어체제가 무너지더라도 인접 지역에서는 對敵堅守할 수 있는 방어체제이다.

그런데 을묘왜변 이후 제승방략으로 군제를 변경하였다. 임진왜란 6개월 전에 류성룡은 진관체제의 복귀를 주장했다. 류성룡은 지방군이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통솔하는 것이 적의 예봉을 상대하기 용이하므로 제승방략보다는 진관체제를 재정비하자는 의견이었다. 류성룡의 의견에 대해 경상도 감사 金睟가 "제승방략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갑자기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여 결국 복구되지 못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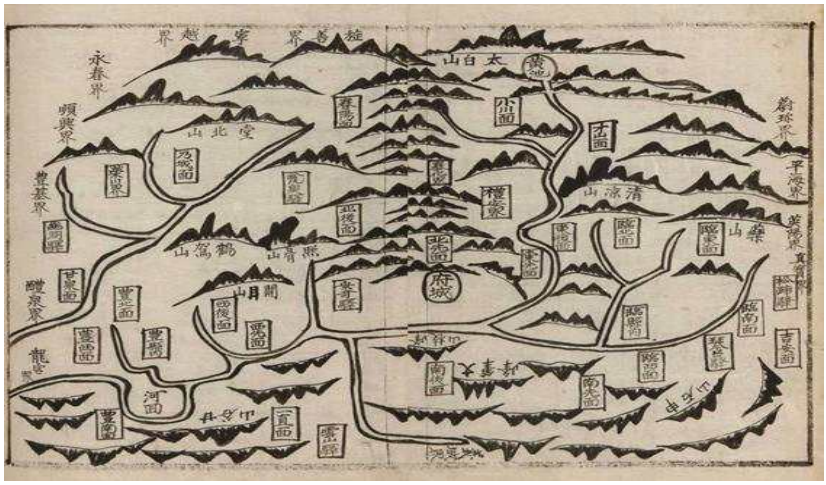
---

2) 이왕무, 「임진란초기 팔공산(八公山) 의병(義兵)의 결성(結成)과 활동(活動)」, 『대구지역의 임진전쟁사 연구』, 辰亂淨神文化宣揚會, 2020.

3)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10월 1일(계사).

경상도는 태종 7년(1407) 낙동강을 경계로 낙동과 낙서로 분도된 뒤[4] 세종 18년(1436) 도절제사가 파견되어 군권을 지휘했다.[5] 경상좌도 병영은 태종 17년 경주에서 울산으로 옮겨진 뒤 존치되었다.[6] 경상좌도의 병영은 조선 전기 내내 울산에 유지되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경상도에는 안동진을 비롯하여 경주진, 상주진, 진주진, 김해진, 대구진의 6개의 거진이 있었다. 안동진은 영해·청송·예천·영주·풍기의 5개 고을을 관할하였다.[7]

안동 진관을 지휘한 부사는 정3품관으로 병마첨절제사가 겸임하였으며, 판관 1명이 보좌하였다. 진관의 군사는 番次에 따라 도성에 상경, 숙위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평상시에는 안동의 방어를 담당하는 留防兵力이었다. 안동 진관은 영해와 청송 도호부, 예천·영천·풍기군, 의성·봉화·진보·군위·비안·예안·영덕·용궁 등의 현이 소속된 체제였다.[8] 안동과 주변의 행정구역과 관방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1〉에서 확인된다.



〈그림1〉 안동부의 행정구역과 관방

4)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9월 15일(을축).
5)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2월 27일(무자).
6)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1월 21일(무신).
7) 『경국대전』 병전 鎭管.
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위의 〈그림1〉에서 안동은 중앙의 원 안에 위치한다. 안동의 관방 시설은 성곽과 봉수로 크게 구분된다. 성곽은 읍성으로 둘레가 2,947척이고 높이가 8척의 규모였다. 읍성은 평지에 조성되었고 해자가 없었으므로 외부의 공격에 방어가 유리한 곳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임진왜란 이전 전국의 성들이 대부분 행정 기능을 중시한 평지성이었으므로 안동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결과이다. 안동부가 읍성이기는 하였으나 군사시설이므로 매년 修築이 진행되었다.[9]

봉수는 안동부의 남쪽 14리에 위치하던 남산 봉수라고 하는 烽枝山이 중심이었다. 봉지산 봉수는 동쪽으로 申石山, 남쪽으로 一直縣 甘谷山, 서쪽으로 풍산현 所山, 북쪽으로 開目山 봉수 등에 호응하는 군사통신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석산 봉수는 동쪽으로 임하현 藥山 봉수와 진보현 南角山 봉수에 호응했다. 소산 봉수는 서쪽으로 예천군 西菴山 봉수에 호응하였다. 개목산 봉수는 북쪽으로 예안현 祿轉山 봉수에 호응하였고, 감곡산 봉수는 남쪽으로 의성현 馬山 봉수에 호응하였다.[10]

세조 즉위 초(1455)에 안동이 관할하던 지역을 좌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중익은 의성・의흥・진보・예안・청송・용궁・비안이며, 좌익은 봉화, 우익은 순흥・예천・풍기・영천이었다.[11] 세조 3년에는 재차 진관의 조정이 있었다. 진관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도였다. 안동진에는 풍기・영천・봉화・의성・예안・진보・청송・군위・비안을 속하게 하고, 경주진에는 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영천・밀양을 속하게 하고, 울산진에는 기장・동래・양산・언양을 속하게 하며, 창원진에는 김해・고성・웅천・칠원・함안・진해・거제를 속하게 하며, 대구진에는 영산・창녕・현풍・인동・의흥・신녕・하양・경산・청도를 속하게 하며, 진주진에는 사천・곤양・하동・남해・단성・산음・의령・함양・삼가・안음을 속하게 하며, 성주진에는 초계・합천・거창・고령・지례를 속하게 하며, 상주진에는 선산・개령・금산

9)『경국대전』 병전 城堡.
10)『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11)『세조실록』 권2 세조 1년 9월 11일(계미).

·함창·용궁·문경·예천을 진관으로 배속하게 하는 조정이었다.[12]

군제 개혁이 활발하였던 세조대의 지방군은 정기적인 훈련을 시행하였다. 매년 1월과 11월에 행하는 진법훈련과 무예훈련, 활·화살·갑주 등 병기의 제조와 정비, 관할지역 안의 읍성과 수축이었다.[13] 이에 따라 안동 부사는 지방군의 무예를 단련시키고 진법을 훈련시켜야 했다. 훈련 종목은 화포와 창·騎射·步射 등이었다. 진법훈련은 대규모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군병을 연습시키는 것이었다. 군병에게 습진을 임무로 삼게 한 것은 평상시의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전국의 지방군을 단일한 조직체로 구성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전국이 진관체제로 편성된 뒤에는 도절제사가 진관에 속한 군사들을 모아 1월과 2월, 10월과 11월 중에 기일을 정해 거진이나 그 진관 안의 제읍에서 돌아가면서 습진토록 했다. 이로써 여러 읍의 군사가 같은 날에 모두 습진할 경우 도절제사가 각 진관의 습진을 다 고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시정되었다.[14]

안동에서 군사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에는 군기 제조와 정비도 있었다. 국초부터 도절제사가 군기 제작을 감독하였다. 세종 19년(1437)에는 총통과 활, 갑옷, 기치를 1건씩 각도에 내려 보내 일정하지 않던 군기의 체제를 통일했다. 문종 즉위년(1450)에는 경기를 제외한 각도에 도회소를 정하고 다시 갑주, 弓箭, 弓袋, 羅鞜 등을 새로 내려 보낸 모형에 따라 제조토록 했다. 이어서 세조 12년(1467)에는 전국 각 읍에서 모두 군기를 제작토록 하고 그 종류와 수량을 상세히 정했다. 이에 따르면 무기류는 1년에 1번, 旗髦類는 2년에 1번 중앙에 바치고, 바치고 남는 군기는 거진에 보관하도록 했다. 2년 뒤에는 거진에서 저장했던 무기에 모두 표를 붙인 뒤 그것을 제조했던 제진에다 각각 저장토록 했다. 또한 도절제사는 지방군의 무기와 갑주, 군마 등 군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영진 및 각 읍이 보관하는 무기를 점검했다. 문종 1년에 제정된 군장점열법에 따라 매년 잡색군을 제외한 각종 군사에게 갑옷

12) 『세조실록』 권9 세조 3년 10월 20일(경술).
13) 『세조실록』 권9 3년 10월 24일(갑인).
14)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2월 26일(을묘).

을 입고 무기를 갖추어 각 읍 거주 군사는 읍별로, 당번 영진군과 기선군은 영・진・포별로 모이게 한 뒤 동시에 점열했다.[15]

안동부에서도 중앙에서 배정한 軍額과 군기의 배치가 이루어졌고 훈련이 정기적으로 거행되었다. 진관체제와 제승방략 등의 군제 변화와 군역의 모순도 있었으나 정기적인 훈련과 방어 태세 점검이 진행되었다. 안동 부사와 판관 등 주요 관원들의 인사 교체시 진행한 것이 解由이며 그것을 통해 병력, 군기, 훈련의 정도가 매번 확인되었기 때문이다.[16]

이와 함께 중앙 정부에서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안동부를 비롯한 일본군의 공격 방향이 될 수 있는 경상도 각지의 읍성들을 수축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경상도는 왜적의 침략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부산・동래・밀양・김해・다대포・창원・함안 등지의 성을 증축하고 참호까지 만들었다. 특히 안동부는 내지로서 군사적 방어에 필요한 성곽이 없었다. 경상도 내지에 군사적 방어형의 성이 없는 곳은 안동부 이외에도 대구부・청도군・성주목・삼가현・영천군・경산현・하양현・상주목이었다. 안동부의 성은 민인들을 징발하여 수축하였다.[17] 전쟁 발발 1년 전에 관주도로 읍성이 갖추어지고 외침에 대비하였던 사례이다. 따라서 임진왜란 초기에 안동부는 물론 경상도 전체가 일본군에게 함몰된 것에 대해 관군의 무능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일본군의 기습에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패배한 것은 전쟁사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적의 기습에 대비하지 못한 군대가 반격을 가해 전황을 승리로 바꾼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당시 동북아시아는 명제국에 의한 책봉체제로 국제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기이다. 조선 왕조에서 일본의 이상한 움직임을 보고는 받고 있었으나 국제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침략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점은 김성일이 일본국을 탐문하고 돌아와 보고한 것에

15)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340-386면.
16)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①, 경상도 안동, 1982.
17) 『선조실록』 권45 선조 26년 윤11월 14일(갑오).

서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국제간 평화적 체제를 유지하고 민인의 생명과 물력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정치체제가 조선 왕조였다면 그것을 파괴하고 국제적 파국 국면을 야기한 것이 일본 도요토미 정권이었다. 따라서 왜군의 침략에 무능하게 대처하고 도성까지 함락당하는 수치를 당한 조선 왕조의 관료들을 공박하기보다는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고 야만적인 침략을 자행한 일본의 군사적 계략을 염두에 두고 임난 초기 안동부의 전황을 살펴야 할 것이다.

3. 임진왜란 초기 전황과 행정조직의 현황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군인 織田信長의 뒤를 이어 1585년 7월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 關白이 되었다. 도요토미는 1587년 큐슈의 島津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일본의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였다. 100여 년 간의 전국시대를 마감한 도요토미는 조선의 복속과 명나라 정복의 구상까지 진척시킨다. 먼저 대마도의 藩主 宗義智에게 조선 국왕의 알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18] 당시의 동북아시아 국제관례를 무시한 일방적인 도요토미 정권의 폭주였다. 조선이 도요토미의 일방적 폭주에 응대할 이유는 없었으며, 상대의 의중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한 결과가 일본군의 전면적 침략이었다.

그럼에도 조선군의 해안 방어의 1차선이라고 할 봉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 가덕진 소속 煙臺에서 일본군 선단이 나타났다는 사실의 보고가 가덕진 첨사를 통해 4월 14일 오전 경상우수영에 전달되었다. 경상우수영에서는 15일에 關文으로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통첩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부산진 상륙과 전투는 부산포 일대의 봉수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통보되었다. 4월 14일 새벽 6시 부산진 전투 소식이 황령산 봉수군을 통해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알려졌다.[19] 전쟁 발발 초기에 기존의 관방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부산진 인근의 양

18)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德富猪一郎, 『豊臣氏時大丁編 朝鮮役』, 明治書院, 1935, 113-180면.
19) 「因倭警待變狀」, 『壬辰狀抄』.

산과 울산 등지에서 연락을 받은 지역 군사들은 평소 훈련대로 동래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동하였다.[20] 부산진 전투 이후에도 경상도 관찰사가 좌우도의 군대를 징발하였고, 일본군이 양산을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초계로 후퇴한 뒤 전라도 관찰사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다.[21]

일본군의 침략에 조선군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파죽지세로 당했다는 말과는 달리 부산의 전투 양상이 내륙으로 평시처럼 전달되고 있었다. 경남만이 아니라 경북 내륙인 상주에도 왜선 수백척이 부산 앞 바다에 나타났다는 관보가 전해졌고, 지역 군사가 출동한 것은 부산진 전투가 발발한 4월 14일 정오 무렵이었다.[22]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본다면, 4월 13일에 일본군 선단의 부산포 도착 소식을 군사통신으로 전해받자 조선 관원들은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임을 간파하였으며, 각 지역의 군사들은 평소 훈련에 따라 약속된 방어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물론 상주와 성주에서 이동한 군대가 일본군과의 전투도 없이 와해된 것도 사실이다.[23] 그러나 기존의 시각처럼 조선군의 지휘와 군제가 부실하여 일방적으로 일본군에게 와해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칫 조선 왕조의 군제가 허실 내지는 허명의 존재로 인식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상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조선 왕조 군대의 강인함이다. 고려말 조선 개국 초기 홍건적을 비롯하여 왜구, 여진 등 사방의 외적을 상대하고 승리한 것이 조선군이다. 용맹한 장수와 신무기의 개발도 뒷받침되었지만, 무엇보다 다년간 운용한 진법과 군제가 적보다 우수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물론 일본군에 대한 적정 탐문의 실패, 일본군의 신 전술에 대한 유연한 대처 등이 미흡해 초기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무너진 것도 사실이다.

---

20)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3, 175면.
21) 이탁영, 『征蠻錄』 乾 임진년 4월 15일-16일; 『난중잡록』 권1 임진년 4월 14-16일.
22) 조정, 『임진일기』 임진 4월 14일.
23) 조정, 『임진일기』 임진 4월 26일; 『巖谷遺稿』 권1 잡저 龍蛇日記 임진 4월 13일.

경상도 좌우병영의 군사들이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 소집될 때, 안동부에서도 군대가 동원되었다. 안동진관 소속의 군사들이 신속히 동원되어 4월 17일 저녁에 선발대가 영천을 지나 경상좌병영을 향하여 이동하였고 18일에는 본대가 후속하였다.[24] 특히 안동 진관에서 출동하였던 군사는 石戰軍이라 불리는 投石 전문의 정예부대로서 명종 10년(1555)의 을미왜변에 동원되기도 하였다.[25] 울산에 있던 경상좌병영에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던 동래부 군사를 제외한 13개 군현의 군사가 4월 21일까지 좌병영성에 집결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후 主將의 무능으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하였지만 경상좌병영 소속 군사의 동원이 신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26]

당시 조선군의 방어선은 1차선이 울산과 동래, 2차가 경주와 영천, 3차가 대구라고 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제승방략에 따라 경상도 수령들에게 관군을 인솔하여 대구에 집결하도록 했다. 당시 경주를 향해 일본군의 주력인 가토 기요마사의 22,800여명이 북상하고 있었다. 안동을 비롯한 13개 읍의 관군이 울산 좌병영에 집합해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침략 초기에 별다른 대응책을 정비하지 못했고 피난민의 혼란과 방화 등으로 경주성이 함락 되는 등 관군은 적을 상대하는데 실패하였다.[27] 그럼에도 조선군의 동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경상도의 병영이 위치한 울산의 좌병영과 창원의 우병영으로 각 군현의 병력들이 집결하였다. 안동부는 거진이었으므로 병영에 군사를 파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28]

경상우병영의 경우 경상우도 소속인 선산의 관군이 4월 16일 事目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18일 오전에는 창원 병영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낙동강을 건너 창녕에 도착하였다.[29] 선산 군대의 이동에서도 경상우도 군사들의 동원

24) 『芝軒集』 권3 壬辰日記 4월 17-18일.
25)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27일(경신).
26) 노영구, 앞의 글, 174-175면.
27) 최효식, 『임난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52-53면.
28)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군사편찬연구소, 2010, 149-150면.
29) 『盤谷集』 권5 난중일기 만력 20년 4월 16-18일.

이 좌도와 동일하게 신속히 평소의 군제에 따라 진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의 진관에서는 평소의 훈련처럼 외적을 상대하기 위해 집결지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집결지에 도착했던 군사들은 중앙의 통솔 장수를 기다리다 지휘통제의 혼선으로 와해되었다. 조선의 군제가 전쟁을 대응하기에는 무능한 체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물론 국왕 선조에게 일본군의 침략 소식이 보고된 것은 전쟁 발발 3일이 지난 17일 새벽 경상좌수사 박홍의 보고였다.[30] 이 보고가 조선군이 외적의 대비에 평소 무관심하고 군제가 유명무실했다는 설명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화를 겪던 경상도에서는 기존 군제를 바탕으로 조선군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왕에게 보고가 지연된 것은 군사 통신 조직과 군사 동원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군의 심중이나 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보고하려고 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군의 전면적인 침략을 보고받은 중앙 정부에서는 도성 방기나 피난이라는 소극적 전략보다는 일본군을 적극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군대의 파견을 추진하였다.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중로에, 좌방어사 성응길을 경상좌도에, 우방어사 조경을 서로에 내려보내고, 조방장 유극량과 변기로 하여금 죽령과 조령을 지키게 하였다.[31] 또한 4월 20일에는 좌의정 류성룡을 도체찰사, 병조판서 김응남을 부체찰사, 한성판윤 신립을 삼도 도순변사로 임명하여 일본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32]

조선군의 방어 계획은 경상도 자체 병력으로 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횡적으로는 조령을 중심으로 죽령-조령-추풍령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종적으로는 이일-신립-류성룡으로 이어지는 지휘 전략이었다. 예컨대 순변사 이일이 대구에 집결한 경상도 군사를 지휘하여 북상하는 일본군의 주력을 저

30)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31)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4일(계묘).
32) 심승구, 「임진왜란의 발발과 동원체제의 재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87-188면.

지하는 동안 배후인 조령 일대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얻어 방어체계를 확보한 이후 추풍령과 죽령을 연결한 횡적 방어 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횡적 및 종적 지휘체제의 연결을 통하여 축차적으로 일본군의 진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륙 깊숙이 진출한 적을 고립시키면 고립무원한 적군이 철군할 것이라는 구상이었다.[33]

안동부는 이런 전화 속에서 일본군 정예 부대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군이 낙동강 하류를 도강하지 않고 북상할 수 있는 경상좌도의 길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군 제2군인 가토의 부대는 4월 21일 대구를 점령했다. 이들은 양산-언양-경주-영천-신녕-군위-비안-용궁-문경-조령 등으로 이동하여 26일에 豊津을 건너 제1군인 小西行長와 합류하여 결국 5월 3일에 도성을 함락시켰다. 가토군은 주둔지에 일부 병력을 남겨 두어 후방 보급로를 방어하도록 하였다.[34] 6월에는 동래, 양산, 밀양, 청도, 경산, 대구, 인동, 성수, 상주가 왜군의 소굴이 되었고 10월에는 경주, 청도, 영천, 영산, 창녕, 현풍 등 경상도의 주요 지역이 대부분 일본군이 장악하는 실태가 되었다. 경상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대구 이남으로 후퇴하던 시기는 1593년 5월 이후였다.[35]

안동이 속한 경상좌도는 함경도로 북상하던 가토 군대의 주요 보급로였으며 그들이 후퇴하여 울산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던 전장의 격전지였다. 안동을 비롯한 경상좌도의 관민이 보급로 일선의 일본군을 공격하고 패퇴시키지 않았으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데 어려웠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36]

경상좌도의 관군이 일본군의 침략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란은 당연한 일이었다. 안동부에서는 부사 鄭熙績이 동래, 울산, 언양을 거쳐 올라오는 일본군을 상대하기에 중과부적이라고 판단하여 안동부를 방기하고

33) 강성문, 「임진왜란 初期陸戰과 방어전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46-51면.
34) 德富猪一郎, 앞의 책, 368-369면; 이욱, 「임진왜란 초기 대구 지역의 의병 활동」, 『대구지역 임진난사』, 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2017, 194-195면.
35) 정해은,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4-7면.
36) 이욱,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의병 활동과 성격」, 『임난의병사의 재조명』, 임진난정신문화선양회, 2012, 75-76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희적만이 아니라 경상 좌병사 李珏, 수사 朴泓, 방어사 成應吉, 조방장 朴宗男・邊應星 등이 모두 근왕을 핑계대고 진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정희적은 처자를 거느리고 길주로 갔다.[37] 조방장 박종남은 의성으로부터 안동의 풍산으로 후퇴하면서 창고를 전부 소각하였다.[38] 이일과 신립이 상주와 충주에서 각기 일본군을 맞아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4월 30일 선조가 도성을 떠나 북으로 파천하는 상황에서 전황은 조선군에 불리하였고 지방 관원들이 동요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안동 부사 정희적이 도망간 상황에서 부내 관원들이 제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당시 안동부에는 읍내에 거주하던 石戰軍들이 모여 일본군을 상대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부사가 도망가면서 성내 창고들의 군기와 곡식들을 분배하여 적을 상대할 군병의 모집도 수비할 군기를 갖출 여력이 없었다. 특히 군량이 분탕된 실정에서 일본군을 상대할 물력이 없어서 결국 안동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39]

안동에 운집한 석전군을 지휘할 관군의 지휘부가 散逸된 사태가 벌어진 것은 비단 안동에만 국한된 실정이 아니었다. 안동 인근 예안의 현감이 군병을 인솔하여 일본군을 상대하면서 안동의 군병이 합세하였으나 패하였기 때문에 인근 군현의 관군도 안동을 응원할 형편이 없었다. 예안은 7월에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 일본군의 전격적인 이동은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 전체가 정상적인 행정망을 동원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적을 막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안동의 관민들이 일본군을 상대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은 적의 주공이 한양으로 향하고 안동, 예안, 상주 등에는 소규모 분견대가 주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동의 관민은 金垓를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왜적을 몰아내는 작전에 돌입할 수 있었다.[40]

물론 안동의 석전군이 활약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592년 4월 28

37)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38) 『난중잡록(亂中雜錄)』 1.
39) 정사성, 『芝軒集』 권3 壬辰日錄 5월 15일.
40) 최효식, 앞의 책, 204-205면;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봉화 소천 전투의 전개와 전쟁사적 의미」, 『영남학』 62, 영남문화연구원, 2017, 389-390면.

일 상주를 점령한 일본군의 일부가 안동을 공격하였을 때 석전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안동이 일본군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동부의 행정력이 공백인 상황에서 석전군의 힘만으로는 조직적인 방어가 어려워 결국 안동이 포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정부에서는 안동 지역의 방어를 위해 安集使 金玏을 파견하고 경상도 초유사로 김성일을 파견하여 행정망을 재건시키고자 하였다. 김륵은 고향 영주를 거쳐 안동에 도착하여 임시로 안동의 행정을 都事였던 安霽에게 맡기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관민이 혼성된 병력이 모였으며 전열을 정비한 이후에는 관료들이 조직을 운영하였다.[41]

김륵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감사와 병사·수사가 없어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 도로가 막혀 여러 읍의 일을 알 수 없었다. 당시 영덕 현감 安璡이 우순찰사에 馳報하여 이르기를, "좌도의 여러 읍은 다 왜적의 굴혈이 되었고, 오직 영해 부사 韓孝純, 용궁 현감 禹伏龍 및 예안 현감 申之悌가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다만 이 세 읍도 왜적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수성이 가능했지 전투하며 수비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동부에 김륵이 당도하자 관원과 선비 50여 명이 찾아왔다. 이에 김륵이 전 도사 안제, 전 검열 金涌을 수성장으로 삼고, 출신 權詮을 領兵將으로 삼았다. 동시에 각 읍에 영을 전달하여 도피한 수령들은 관아에 돌아와 일을 보게 하였다.[42]

안동부사가 성을 버리고 일본군이 안동을 공격하는 시기에 안동 판관 尹安性이 적을 방어하기 위해 울산좌병영으로 출진했다가 안동으로 귀환한 일이 있었다. 윤안성은 안동의 석전군을 이끌고 좌병영의 동문을 사수하고 있었다. 당시 경상 좌병사 이각이 안동의 석전군을 자신에게 예속시켜 달라는 청을 물리쳐서 석전군이 후일 안동의 방어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었다.[43] 윤안성이 귀환한 후 안동부 내의 병사들을 소집하였으나 이미 민인이 흩어져 응하는 사

41) 이욱, 앞의 글, 2012, 68-77면.
42) 『난중잡록』 권1 임진년 5월 8일.
43) 『난중잡록』 권1 임진년 4월 21일.

람이 없었다.[44] 그럼에도 안동에는 이황의 제자와 문도들이 많이 있어서 창의병이 운집하였고 안집사 김륵이 왕명을 띠고 파견되어 일본군을 상대할 군진을 갖추게 된다. 또한 초유사 김성일이 초유문을 공표하여 안동 전 지역 사림들이 의병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김해를 대장으로 한 安東別邑鄕兵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안동별읍향병은 안동에 그 본진을 두었다.[45]

5월 22일 일본군이 안동을 함락시키고 7월에는 예안에 들어와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안동 지역 일대가 위기를 맞이하였다. 다행히 7월 19일에 朴晋 등의 부대가 안동부에 입성하여 김륵으로부터 안동진의 군정을 넘겨받으면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46] 박진이 안동진에 주둔하면서 지역의 민심 수습과 상황을 진정시킴으로써, 경상좌도 내 지휘체계 확립과 군사력 재편이 가능하게 되었다. 박진의 활동으로 경상좌도의 조선군의 전투 양상이 지역 단위의 방어에서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좌도 내의 군현은 물론 우도 등 다른 지역과의 연락체계가 연결됨으로써 일본군을 양면에서 협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47]

1만 여명에 달했다는 향병은 안동 부사의 협력 하에 군량과 군기를 보급받으면서 관군과 공동작전을 거행하였다. 당시 향병 대장 김해는 안동에서 감사 한효순, 병사 박진 등과 전투 상황에 대처하며 전황을 관리하였다. 향병은 안동의 방어를 위해 움직였으나 차츰 주변의 일본군을 공격하는 전투를 감행하여 문경의 당교를 공격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당교는 낙동강의 상류이며 조령으로 가는 육로가 겹치는 교통의 요지로 일본군 주요 보급기지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따라서 당교의 일본군을 소탕하는 것이 안동은 물론 경상좌도의 일본군을 몰아내는 급선무였다. 결국 이여송 군이 문경에 주둔하면서 명나라 군대와 합동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여 1593년 당교의 일본군을 밀양까지 몰아내게 된다.[48]

---

44) 『鄕兵日記』, 임진 4월 14일.
45) 최효식, 앞의 책, 206-213면.
46)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47) 김진수, 「임진왜란기 박진의 군사 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2015, 255-258면.

4. 안동부의 전쟁 대처

중종 14년(1519) 5월에 경상도는 지방이 넓고 사무가 번거롭다고 하여 좌우도에 관찰사를 두었다가 11월에 다시 통합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중에는 일본군의 침략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좌도와 우도에 관찰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1594년에 행정명령이 일원화되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합했다.[49] 전쟁의 과정 중에 행정체제가 수차례 변화하였다는 것은 관료들의 초기 전쟁 대응이 난관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임진왜란 초기의 안동부 운영이나 관원들의 대응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용이하지 않다. 전쟁 초기 혼란한 상황에서 관료들의 행정계통의 움직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읍지와 문집 등에 남겨진 자료들을 통해 안동부의 전쟁 대처 상황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안동부에 부임한 관원들을 살펴보겠다. 임진왜란기 안동부에 재임했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관계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읍지에 남겨진 선생안의 부사와 판관의 부임시기를 통해 임진왜란기 안동부의 운영 수뇌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1〉은 임진왜란기를 기준으로 재임하였던 부사와 판관을 실록과 읍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1〉 안동부 재임 부사와 판관[50]

성명	직책	부임 시기	체직 시기	비고
金宇顒	부사	무자 1588(선조 21)	기축 1589	
兪大述	판관	무자 1588	경인 1590	
鄭熙績	부사	기축 1589	임진 1592(선조 25)	임진왜란
尹安性	판관	경인 1590	임진 1592	임진왜란

48) 이욱, 앞의 글, 82-86면.
49) 이선희, 「임진왜란기 문경 지역 지방관의 임용실태와 전쟁 대응」, 『문경지역의 임진난사 연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6, 99면.
50)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①, 경상도 안동, 府先生, 1982, 118-121면.

金玏	부사	임진 1592	임진 1592	임진왜란
禹伏龍	부사	임진 1592	병신 1596	임진왜란
李芳隣	판관	임진 1592	갑오 1594	임진왜란
黃暹	부사	병신 1596	정유 1597	임진왜란
趙安邦	판관	정유 1597	정유 1597	정유재란

위의 〈표1〉에서 임진왜란기 안동부에 재임한 부사와 판관은 6명으로 나타난다. 임진왜란을 맞이한 부사와 판관은 정희적과 윤안성이다. 당시 정희적과 윤안성이 안동부를 떠난 사연에 대한 실록의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及第 정희적은 일찍이 대간과 시종을 지낸 사람으로서 벼슬이 貂蟬에 이르렀는데, 앞서 안동부를 맡았을 적에 막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적이 數日程 밖에 있었는데도 군기와 官倉을 불태워 버리고 뒤질세라 서둘러 도망가 멀리 북쪽 변방으로 들어가 구차하게 살기만을 도모했습니다. 그가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저버리고 멋대로 封疆을 버린 죄가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오래도록 국법을 면하고 있으므로 輿情이 분개하고 있으니, 잡아다가 국문하여 율대로 정죄하소서.(…)[51]

> (…) 숙천 부사 윤안성은 전에 안동 판관으로 있을 때 처음 적변을 당하여 성을 버리고 도망하여 멀리 다른 지방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임무를 맡은 뒤에는 일을 아전에게 맡긴 채 중국군에 대한 식량의 운반과 관곡의 출납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람되이 褒奬을 받아 당상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니 파직시키고 당상 加資는 개정하소서.(…)[52]

정희적은 선조 1년(1568)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53] 홍문관의 간관 자리를 거친 뒤 선조 16년(1583) 여진에 대한 정벌에 순찰사 종사관으로 참가하였

51) 『선조실록』 권43, 선조 26년 10월 25일(을사).
52)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16일(경자).
53) 『선조수정실록』 권2 선조 1년 6월 1일(기묘).

다.[54] 그는 이황의 제자인 김효원과 친교가 있다는 동인으로 분류되었다.[55] 실록의 정희적과 윤안성에 대한 평가는 전황이 불리한 시기 안동부를 자의적으로 떠난 것을 중점적으로 비난 하는 것이다. 다만 두 명이 평안도의 지방관으로 활약하면서 전시를 이어간 것을 보면 일본군 침략 초기 응대에 미숙한 것을 제외하면 지방관으로는 큰 흠이 없어서 계속 기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안동부를 명령 없이 버리고 이탈한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정희적이 길주까지 이탈하면서 식솔을 이끌고 간 것은 비난의 대상이었다.[56]

위의 〈표1〉에서 다소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김륵이다. 김륵의 경우는 재임 기간이 확실치는 않으나 단기간으로 추정된다. 실록에는 정희적이 길주로 도망간 이후 정부에서 새로 부사로 제수한 인물이 김륵이라고 하였다.[57] 그런데 또 다른 실록 기사에서는 김륵의 부임에 대해 묻는 선조의 말에 대해 윤두수가 우복룡이 적임자라고 대답을 하여 김륵의 부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윤두수는 김륵이 부사로서는 우복룡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58] 김륵은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로서 안집사였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육로와 해로가 일본군에 의해 모두 차단되어 중앙 정부에서 경상도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일본군이 장악하던 경상 우도의 상황은 파악조차 못하던 실정이었다.[59]

물론 윤두수가 추천한 우복룡은 군병 훈련이 능하여 안동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손꼽혔다.[60] 우복룡은 원래 용궁 현감이었다가 고을을 사수하고 일본군과 상대하기까지 하여 부사로 추천된 인물이다.[61] 우복룡은 儒學

54) 『선조실록』 권17 선조 16년 2월 12일(을미).
55) 『선조실록』 권10 선조 9년 3월 3일(병신).
56)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57)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58)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24일(신해).
59) 정해은,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11면.
60)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14일(기축).
61)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5일(갑술).

으로 벼슬길에 오른 문음이었다. 용궁은 조령과 가깝고 문경현에 접하여 있었다. 변란 초기에 수령들이 모두 도망하여 흩어졌으나 우복룡은 홀로 관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군사 1천여 명을 모집하였다가 왜적을 만나 패하였다. 그러나 다시 수백 명을 모아 밤에 예천의 小屯을 습격하여 적을 베고 사로잡는 성과를 올렸다. 이 전공으로 안동부사가 된 것이다.62)

전쟁 중 안동 부사의 직무 중에 급선무는 적정의 대응이었다. 안동이 일본군에 함락되던 시기에 결성된 의병은 전쟁 수행을 위한 행정망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안동 유생의 의병은 재야의 사림이 중심이 아니라 전직 관료들이 앞장서 창의했으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사안의 기획이나 결정에 신중하고 지역민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63)

이런 배경에서 임진왜란 중의 안동부는 일본군 상대의 최전선 사령부가 설치되는 지역이 된다. 1593년에 경상도 순찰사 한효순이 거느린 군사 1만 명이 안동부에 주둔하였다.64) 전쟁 발발 8개월 만에 안동은 군사 요충지가 되어 다수의 군 병력이 주둔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안동부에 외부 병력이 주둔함에 따라 그들의 임시 거처, 군량 보급 및 보관, 군기 제조 및 수선, 인력 동원 등 군사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안동이 군사 거점이 된 것은 일본군과 충돌하는 최전선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이면서 주요 교통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어려운 養兵의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경상도 진관 중에 동래・경주・대구・진주・상주가 모두 탕패되어 민인과 물력이 고갈된 상태였다. 반면 안동은 일본군의 공격이 1회에 그친 곳이면서 적의 장기 주둔이 없던 곳이므로 타 지역에 비해 관공서와 방어시설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안동부의 보존은 곧 주변 민인들이 운집할 기회를 제공하여 병정을 모집하고 군수품을 양산 및 이동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충분한 지역이었다. 장병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해 주고 상격을 주어 조련에 임하게 했다. 또한 화포・궁시・槍刀 등의

62)『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63)『난중잡록』권2 임진년 9월 16일.
64)『선조실록』권34 선조 26년 1월 11일(병인).

제조도 함께 진행하였다. 안동 진관에 소속된 예안・봉화・풍기・영천・청송・진보・의성 등에서 선발된 장정들이 군대를 편성하고 군수품 제조에 임했다. 특히 일본군과의 접전 경험에서 얻은 화기 사용의 중요성에 따라 화약과 조총의 제조에 집중하였다.[65]

그런데 안동부가 경상도 관군의 사령부가 된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명나라 군대의 보급과 지원이었다. 예컨대 안동부에 주둔한 宣府・大同府의 병마와 麻提督 표하의 撻兵들이 일으킨 문제이다. 그들은 마초를 벤다는 이유로 여항으로 흩어져 나가서 민간의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를 겁간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부내를 무법으로 만드는 사태를 야기하였다.[66] 물론 명나라 지휘부가 군법으로 처단하여 소동이 가라앉기는 하였으나, 외국군이 다수 주둔한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례이다. 안동부에 주둔한 명나라 군대는 수천명에 달했는데, 1598년에는 提督衙門의 原任參將 王登山이 군사 1,200여명, 大同遊擊 擺賽가 2,500명을 거느리고 주둔하여, 도합 3,700여명의 명군이 안동에 있었다.[67]

안동부에 명나라 군대가 다수 주둔한 것은 명군의 지휘부가 안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군도 조선군의 사령부가 안동부에 있었던 것과 같이 경상도의 왜군을 공격하는 사령부로 안동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점은 전쟁 초기부터 나타난다. 명나라 측에서는 경주와 고령에 유격을 두어 성을 쌓아 陣을 구축하고, 영천 및 의흥에 군사를 주둔시켜 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게 하고 성주와 선산에다 군사를 주둔시켜 후원하게 하는 한편, 총병・대장은 안동에 주차하게 했다.[68] 일본군이 퇴각할 때까지 안동부는 군사 도시로 기능하였던 요충지였다.

65)『선조실록』 권39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66)『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2일(정사).
67)『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29일(갑인).
68)『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30일(을유).

5. 맺음말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계기와 사건을 생각해보면 단연코 임진왜란일 것이다. 조선시대 시기구분에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학술 방법인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사에서 대표적인 사건을 언급하라고 한다면, 임진왜란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여전히 한국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일본군의 야만적인 기습 침략과 그 불법성 및 잔인성에 대한 부정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 여전히 학계에서도 임진왜란 연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앞서 말한 잠재의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나, 무엇보다 그런 관심사가 국민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많은 부분이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사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대규모 전투 장면이 연상되는 전면전이나 대첩 위주의 국난극복 현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서 그 사이 사이 장기간 진행된 지역별 현황이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소략했다. 임진왜란은 7년이나 지속된 전근대 한국사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전쟁이다. 조선 왕조를 전후기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전 국토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민인들이 신체적으로 심정적으로,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시기였다. 7년 전쟁 중에 군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삶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관들의 지역 유지와 운용은 미해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안동부가 지니는 역사성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그 연원이나 유래가 남다른 곳이다. 려말선초 공민왕의 고사에서부터 퇴계를 비롯한 사람의 학연 등 안동만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은 조선 왕조의 일익을 담당하던 지역이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 안동부에 대한 연구에서 임진왜란의 와중에 지방관과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전쟁의 대응 사례들을 관 주도로 살피지 못한 미비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안동부의 전쟁 대응 양상을 관료들의 움직임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전쟁 초기의 혼란을 제외하면 지역의 행정조직을 토대로 왜군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의 병력이 주둔하며 후방 병참기지로 기능한 것은 안동부의 공적 기능이 전쟁 중에도 정상 작동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배경에서 안동부는 물론 경상도 지역의 임진왜란 연구는 기존의 의병 위주 전쟁 수행이라는 구국적 구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지역 행정체의 전쟁 대응이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亂中雜錄』, 『盤谷集』, 『新增東國輿地勝覽』, 『巖谷遺稿』, 『壬辰狀抄』, 『壬辰日記』, 『征蠻錄』, 『芝軒集』, 『鄕兵日記』

德富猪一郎, 『豊臣氏時大丁編 朝鮮役』, 明治書院, 1935.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육군본부, 『한국군사사』 5, 경인문화사, 2012.
최효식, 『임난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한국학문헌연구소,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아세아문화사, 1982.

강성문, 「임진왜란 初期陸戰과 방어전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군사』 84, 군사편찬연구소, 2012, 1-27면.
_____, 「임진왜란기 박진의 군사 활동과 평가」, 『한국사학보』 60, 고려사학회, 2015, 243-276면.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3, 169-197면.
_____, 「임진왜란 초기 봉화 소천 전투의 전개와 전쟁사적 의미」, 『영남학』 62, 영남문화연구원, 2017, 381-406면.
심승구, 「임진왜란의 발발과 동원체제의 재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177-230면.
이선희,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진단학회, 2010, 95-123면.
_____, 「임진왜란기 문경 지역 지방관의 임용실태와 전쟁 대응」, 『문경지역의 임진난사 연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6.
이왕무, 「임진란초기 팔공산(八公山) 의병(義兵)의 결성(結成)과 활동(活動)」, 『대구지역의 임진전쟁사 연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20.
이 욱,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의병 활동과 성격」,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_____, 「임진왜란 초기 대구 지역의 의병 활동」, 『대구지역 임진난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군사편찬연구소, 2010, 117-181면.
_____, 「임진왜란 초기 下三道 勤王軍 활동 연구」, 『학예지』 19, 육군박물관, 2012, 75-104면.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군사』 76, 군사편찬연구소, 2010, 61-88면.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지원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2014, 133-168면.

_____, 「임진왜란기 대구 수령의 전쟁 대응과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1-33면.

【Abstract】

During the Imjin War period, the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 forces in the Andong region conducted a war

Lee, Wang-Moo*

The Imjin War was a long battle of 7 years. The story of the battle, which is the basis of the history of war, is also important, but research on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of the region, which was a space of war, is also necessary. The 7-year long-term war proves that war was possible only when the troops and munitions were prepared,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systems of local officials were organically connect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Imjin era, Gyeongsang-do was a region where Japanese troops resisted on the basis of Ulsan until the end and then retreated. Moreover, as the Ming Dynasty troops were stationed, Andong and Gyeongsang Province were even engaged in an international war. The highlight of Andong's government officials' coping with the urgent war situation is a work that satisfies the incomplete part of the study of the Imjin War,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the character and specificity of the region. In particular, it will be a turning point to make up for the disparity of local officials in the area attacked by the Japanese army as incompetent figures who were completely unprepared for wa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isting war history. It is because the perspective of disregarding the basics of the history of the war is the reason to turn the state of numerical inferiority early in the war to incompetence.

Keywords: The Imjin War, Japanese Invasion, Gyeongsang-do, Andong's government officials, numerical inferiority.

접수일: 2021.03.31.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20.

* Professor, Dept. of History, Kyonggi Univ.